

출산 전 진료비 20만원 지급

출산을 앞둔 임신부에게 20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된다.

정부는 10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신부의 출산 전 진료비를 부가급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오는 15일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e-바우처로 20만원씩 받게 됐다.

임신부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면 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와 e-바우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발급된 e-바우처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5회 이상 나눠 사용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아카데미 12월 교육 안내

국가복지정보시스템활용교육

일시 : 12월 8일(월) ~ 11일(목)
내용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운영사항
장소 : 사회복지협의회 3층다수홀

예비사회복지종사자 행정실무교육

일시 : 12월 9일
내용 : 문서관리, 예산의 이해
장소 : 제주현대대학

비영리법인 세무교육

일시 : 12월 12일(금)
내용 : 비영리법인의 세무업무 기초실무
장소 : 사회복지협의회 3층다수홀

모금회법 개정 논란 가열

손숙미 의원발의 "국민의 기부처 선택권 확대·모금시장 활성화"

모금회 "정부의 기부문화 주도는 시대착오...즉각 개정 철회해야"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좁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의 기부처 선택권을 확대하고 모금시장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은 전문모금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전문모금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을 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민·관으로 구성된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문모금기관 지정 효력은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로부터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간모금기관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동모금회는 11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부문화 주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민간기부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11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모금회법 개정 저지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부문화 백년후퇴' '법안개정 철회'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모금회는 성명을 통해 "법안은 지난 10년간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룩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민간의 기부문화 성과를 부정하고, 정부의 관리·통제로 회귀토록 함으로써 자발성과 창의성을 근간으로 하는 기부문화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복수의 민간전문모금기관을 통해 국민의 기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민간모금시장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로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 및 지원 기능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민간 모금기구를 정부의 산하 조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모금회는 "이번 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은 기부문화 발전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기부자와 민간모금기관을 비롯한 복지현장의 다양한 여론과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졸속적인 제출과 처리로 한국의 기부문화를 퇴행시키고 관치주의로 회귀하게 하고 있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지금껏 모금회는 국민들의 정성 어린 모금의 대행자로서 성실히 일하기보다 소수인들의 독점과 권력화로 많은 만행들을 일삼으며 모금정신을 혼탁시켰다"며 "모금회는 졸렬한 망언을 중단하고 바람직한 발전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토피·천식 예방강화

제주보건소 등 시범기관 지정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하는 2009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시범보건소로 지정됐다.

이들 보건소에는 각각 2000만원씩 지원되며, 아토피와 천식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벌이게 된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아토피 클리닉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주대 의과대학연구소에 설치한 환경성 질환연구센터에서는 아토피질환자의 체계적 등록·관리 및 아토피질환과 환경오염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등 본격적인 아토피질환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아토피피부염환자 병·의원 이용률은 2006년 기준 3.1로 전국 평균 2.3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내년도건강보험료 동결
시설 탐방·가정위탁지원센터
- 사회복지소식 4·5면
지역장애인요리대회·소식마당
푸드뱅크·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장수건강산업활성화 세미나



사랑의 식품을 이웃과 함께
기탁하는 기쁨! 이용하는 희망을!
Tel. 064-702-3784 / 1688-1377

작은 사랑 큰 행복, 푸드뱅크와 함께 하세요!

푸드뱅크에 기부된 식품은 각 지역의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과 장애인, 무료급식소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조중하게 전달됩니다.



사랑의 식품을 이웃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푸드뱅크

내년도 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 따라 차등 적용 암·난치성환자 본인부담금 절반 낮춰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000년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경제난을 감안해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는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지난해 6.5%, 올해 6.4% 등으로 매년 인상돼 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험료 동결에도 어린이의 총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등 5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는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계층은 현재의 절반인 200만원으로 줄고, 소득 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상위소득 20% 계층은 지금과 같이 400만원이 유지된다.

또 내년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12월부터는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금 비율도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치료는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MRI 검사와 노인틀니, 치석

제거 등은 2010년 이후 재정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장성 확대로 내년 32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복지부는 약값 인하와 불필요한 장기 입원 환자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 등을 통해 239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의료수가를 의원을 제외하고 평균 2.2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병원급은 2.0%, 한방병 의원은 3.7%, 치과는 3.5%, 약국은 2.2% 인상된다.

내년도 의료수가는 최저임금 인상 등 불가인상수준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인상률은 지난 5년간 평균인상률보다 낮은 수치다.

연도별 의료수가 인상률은 2004년 2.65%, 2005년 2.99%, 2006년 3.50%, 지난해 2.30%, 올해 1.94%다.



“아동학대 이제 그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주도간호사회가 11월

20일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한미음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여성세계정상기금(VWSF)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00년 제정했다.

전산화계실무교육 수료자 6명 합격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7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 사회복지 아카데미 '전산화계시스템실무교육'을 받은 교육생 중 6명이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된 제36회 국가공인 전산화계 자격 시험에서 합격해 전산화계 2급 자격을 취득했다.

특히 김정숙씨는 1급 시험에도 합격해 1·2급 자격을 동시에 취득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 사회복지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스스로 자기계발과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음은 합격자 명단.

- ▲김정숙 ▲고경애(소망요양원 사무국장)
- ▲김순녀(성지요양원 사무국장)
- ▲김성부(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 ▲한종협(제주케어하우스)
- ▲배황진(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팀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성과 전국 1위

제주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서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평가위원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8개 평가반이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1차 서면평가 및 현지 확인, 2차 현장평가를 거친 뒤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제주도는 차별화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으로 각종 평가에서 8회 수상한데

다 저출산·고령사회 전담조직 신설, 직원 마인드 향상 교육과정 개설, 조례 및 관련 법규 개정 추진, 전국 최초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수립, 제주지역 출산·양육 후원협의회 구성 출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학대 추방의 날(4월 27일) 지정, 보육시설 확충, 여성장애인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자녀 3명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우대 시책 추진 등으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최초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한 점과 산다가족왕 선발대회, 제주산다공동육아운동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도민 인식 개선에 기여한 점도 최우수 기관 선정에 한 몫을 담당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추진 등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출산장려 위한다민 의식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에 맞는 출산장려 기반 조성을 위한 도민 의식조사를 이달 말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일반 성인 남녀의 결혼관 및 자녀관 등에 대한 인식, 출산장려 대책 인지도, 출산정책을 이용

해 본 임신부와 산육기 여성들의 만족도 등이다.

제주도는 이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저출산 극복 정책 수립 및 조직 운영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반 성인 남녀, 정

책실무자, 임신부들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출산을 증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48명으로 전국 1.26명보다는 높지만 OECD 국가 1.6명에는 미치지 못해 적극적인 출산장려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장애인제주관광복지사업단 출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11월 4일 관광산업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시티론가호텔 제주에서 '장애인제주관광복지사업단'을 조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관광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실무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장애인제주관광복지사업단

은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장애인의 지속적인 고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도내 100개 관광업계 및 전국 50여개 복지시설과 연계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복지협의회 6~10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사용내역	금액
재가결연후원	3,810,000	재가결연대상자후원	430,000
난치병환아후원	280,000	난치병환아후원	0
복지사업후원	7,700,000	복지사업후원	1,536,23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13)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 구현 앞장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03년 5월 문을 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 겨울 문턱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 첫눈이 반갑게 찾아왔을 쯤, 제주시노형동에 위치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찾았다.

도민 관심 유도 위해 길거리 캠페인 등 홍보 주력 강철남 소장 "아동위탁은 한 가정을 살리는 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부모의 이혼과 경제적인 어려움, 학대 등으로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지낼 수 없을 경우 일반가정에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10월 말 현재 360여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14명은 일반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나머지는 조부모 혹은 친·인척에 맡겨져 생활하고 있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의 특성과 좋은 부모 역할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뒤 수료증을 받아야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가정에는 생계급여와 양육비 등이 지원된다.

센터는 아동들이 위탁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탁부모 교육과 친부모교육, 찾아가는 친인척 위탁부모교육, 자원봉사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사업을 비롯해 위탁아동 1일 견학, 가족캠프, 문화활동 지원 등을 펼치는 정서지원사업, 연구보고서와 자료집 발간 등의 연구조사사업, 긴급 보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례관리 등을 하는 아동보호사업 등이 있다.

센터는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게릴라·오일장 Day 캠페인 등 길거리 캠페인에서는 가정위탁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거리상담실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위탁부모 신청을 받기도 한다.

지난 5월에는 가정위탁보호사업 5주년 기념으로 2008 가정위탁보호백서 '아이들이 아이들아'를 발간하기도 했다. 가정위탁보호백서를 발간한 것은 전국 최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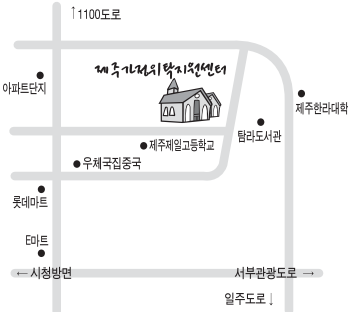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의 그늘은 센터에도 드리워지고 있다.

양창근 행정지원팀장은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위탁에 대한 문의전화

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보호아동은 급증하는 데 비해 일반위탁가정은 부족한 실정이고, 위탁가정을 모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03년 58명이던 위탁아동수는 5년새 6배 이상 증가했으나 일반위탁가정 증가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철남 소장은 "아동위탁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센터는 앞으로 소나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산이 돼 어린이들을 보듬고, 가정이 단란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747-3273~4 <현경애 명예기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 우수기관

서귀포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민서비스 자원 발굴 및 서비스연계 제공 시책 추진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주민서비스 자원 발굴 및 관리운영 충실도,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편의성, 공공기관과의 서비스연계체계 구축, 민관협력력을 통한 민간자원 발굴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

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정부포상과 함께 상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서귀포시는 상사업비를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봉사단 운영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른 시·군·구보다 늦게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시작했으나 시와 읍·면·동은 물론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제주시민과 함께 한 사회복지 열린마당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16일 열려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위원장 고경운)가 11월 16일 제주시 동문로터리 분수대 광장에서 '제주시민과 함께 하는 2008 사회복지 열린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시민과 사회복지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분과별 홍보부스 7개동이 운영돼 부문별 복지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 장애체험과 우울증자가진단, 다문화음식 시음회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마련됐다.

또 흥익아동복지센터의 핸드벨 연주와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의 발레공연, 영락종합사회복지관의 사물놀이 등 무대공연을 선보였으며, 부대행사로 이름표 달아주기 캠페인,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고흥상당 등이 풍성하게 진행됐다.

제주시청 허철훈씨 자활수기공로 대상 수상

제주시 사회복지과 허철훈 자활복지담당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한 2008년도 자활수기공로부문 공모에서 대상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허철훈 담당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추천받은 사회복지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공로수기 공모에서 '자활의 꿈!에 컬러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은?'이란 제목의 수기로 응모했다.

허철훈 담당은 자활지원 활

성화 사업을 통해 고용취약 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도하고, 자활실무협의체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자원을 꾸준히 발굴한 점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허철훈

다문화가정센터 임대기금 마련 일일호프

제주다문화가정센터는 11월 16일 탐동 브라스크피습에서 임대기금 마련 일일호프를 운영했다.<사진>



여러 나라 음식과 옷차림으로 이색적인 문화를 선보인 이번 일일호프는 결혼이민자여성들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다문화가정센터는 이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넓은 공간으로 사무실을 옮겨 결혼이

민자들에게 대한 한글기초교육, 한글자적증대비교육, 컴퓨터자격증대비교육,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다양한 직업창업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모금회장에 박찬식씨 취임

박 찬 식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6대 회장에 11월 17일 취임했다.



박 신임 회장은 "앞으로 기부자의 미담사례를 상세하게 홍보해 고귀한 나눔정신을 갖고 있는 기부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부문화의 선진화를 앞당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배분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이라는 3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공동모금제원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회장은 복제주군수와 제주도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Cook "나도 이젠 요리왕"

제5회 지적장애인 요리대회 가롤로의집 금상 수상

지적 장애인들이 평소 갈고 닦은 요리솜씨를 뽐내는 대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제주시지부(지부장 이금희)는 11월 21일 제주한라대학 호텔조리과 요리실습실에서 제5회 지적장애인 요리대회 '나도 이젠 요리왕'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적장애인들이 식(食)생활을 스스로 영위하도록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이들의 식생활 문화의 문제점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장애인 4명과 지도교사 1명이 1팀을 구성, 총 7개 팀이 참가해 소고기야채볶음밥 만들기 경연을 벌였다.

대회 결과 가롤로의집이 금상을 차지했으며, 혜정원 아가



△11월 21일 제주한라대학에서 열린 제5회 지적장애인 요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감자와 버섯 등 요리재료를 손질하고 있다.

의 집과 한림소망의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각각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이들 팀에는 각각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됐다.

장애인복지협회 제주시지부 관계자는 "항상 가족이나 선생님 등 주변에서 만들어 준 음식

을 먹다 직접 재료를 썰고 볶으며 음식을 조리한 과정이 참가자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됐을 것"이라며 "스스로 요리를 만들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앞으로 이들의 자립생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옥 명예기자〉

태고원장에 휴완 스님 취임

제주태고원 2대 원장에 휴완 스님이 11월 8일 취임했다.



휴완 스님은 취임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나 큰 흔들림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휴완 스님은 제주교도소 종교위원과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 총무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신도회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일 장애인 문화교류 참가

가예탈춤패

가롤로의 집과 제주애역의 집 생활장애인들로 구성된 가예탈춤패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일 시민문화교류협회 '나는 새' 주최로 일본 사카이시 국제장애인교류센터 Big-1 센터에서 열린 '제4회 한·일 장애인 문화교류공연 한마당 in SENBOKU' 행사에 참가했다.

가예탈춤패는 가장 마지막 순서로 나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쳐 한국 문화의 예술성을 뽐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렸다.



행복을 나누는 아라음악회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과 아라초등학교(교장 홍창수), 아라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용창)는 공동으로 10월 31일 아라초등학교 강당에서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을 나누는 아라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기관에서 준비한 노래와 율동 등을 선보였으며, 제주시립합창단 문순배씨와 제주여중오케스트라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소/식/마/당

2008 드림스타트 '드림하우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귀포시 후원을 받아 2008 드림스타트사업의 일환으로 드림하우스 사업을 실시했다.

서귀포종합복지관은 대천동과 대륜동 지역 5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줬다.

행복한가족캠프 실시



아동복지시설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는 11월 1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위치한 메인리조트에서 '행복한 가족캠프'를 실시했다.

아동 및 부모 40여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는 가족나들이, 레크리에이션, 공동작품 만들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간 신뢰회복과 친밀감을 높이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우리가족 하나되기' 나들이



창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은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아동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지지프로그램 '우리가족 하나되기' 나들이를 실시했다.

이날 중증장애아동과 가족들은 마상쇼를 관람하고 도예체험을 함께 즐기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간 우애를 돈독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11월 7~8일 오션그랜드호텔에서 도내 자원봉사 실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8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자원봉사 협력 증진과 네트워크 협력체계구축, 도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We can do it' 탐방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메트라이프 아동복지재단 지원사업으로 10월 7일부터 2박 3일간 장애아동의 사회성 강화를 위한 테마지원프로그램 'We can do it' 도외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장애아동들은 서울 및 경기도 일대를 둘러보며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노인복지시설 직원 연합연수회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시설 직원 연합 연수회가 10월 22~23일 양일간 남원생활체육관 및 야외운동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7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연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강연을 통해 제주도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9) 일등정육백화점

“나눔 자체가 큰 보람”

첫 눈이 내리고 쌀쌀한 날씨에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일등정육백화점(대표 김철성·김미정)을 찾았다.

성이시돌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나눔을 실천하던 김대표 부부는 2006년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북부기초푸드뱅크 사업을 개시하자 직접 푸드뱅크 사무실을 찾아 푸드뱅크에 작지만 소중한 사랑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에 대해 김 대표 부부는 “한림지역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나눔 자체가 큰 보람”이라면서 “고마움의 표시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푸드뱅크를 통해 형식적이지 않고 진실되게 나눔이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덧붙혔다.

푸드뱅크 뿐만 아니라 ‘한아름봉사회’ 일원으로써 목욕봉사 등을 하고 있는 김 대표 부부는 지난 추석에는 47명

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쌀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김 대표 부부는 “나눔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그래도 그 마음만으로도 아직 세상은 훈훈한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날씨는 쌀쌀했지만 그들로 인해 마음은 따뜻해졌다. <추영민 명예기자>



8-10월 식품기탁자명단 수량

- ▲ SMC던
- 킨도너츠=도넛류 2만 8251개 ▲ 명당양과(신제주점)=빵류 1200개 ▲(주)금강축산유통=육류 120kg ▲C(주)=양념류 2626개 ▲(주)오뚜기=부식류 4038개 ▲(주)롯데칠성=음료류 3만 4728개 ▲(주)롯데제과=과자류 131 상자 ▲싱싱부식=김치 40kg ▲(주)대상=양념류 608상자 ▲축협=육류 72kg ▲패밀리마트=부식류 69상자 ▲파리바게뜨(공항점)=제빵류 600개 ▲가나안유통=채소 1000개 ▲떡마을=떡 40kg ▲제주민속떡집=냉동떡 40kg
- 제주 광역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연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이대원)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도내 12개 장애인시설 종사자 41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및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는 ‘이용자 참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강의에서 “최근 사회복지 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공급자 위주의 복지가 아닌 수요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화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에서 자기결정 (self determination), 참여 (participation), 서비스 이용자의 역량강화(empowerment)가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욕구사정이나 서비스 계획 및 실시, 평가 등의 전 과정에 이용자의 동의, 선택, 참여를 촉진함과 동시에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장애인의 경우 자기결정을 대리하거나 옹호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권리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남 여유지동산 윤덕찬 원장은 ‘이용자 참여 매뉴얼’ 교육에서 “장애인 이용자의 참여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 및 종사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각 시설에서 토론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또 장애인 생활 시설인 교남 소망의집과 장봉혜림원 등 선진 우수시설들을 직접 살펴보고 우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 도내 장애인시설과 비교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주애덕의집 흥순자 사회복지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장애인들을 지원해야 하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2박 3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시설 종사자간 우애를 돈독히 하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소영 명예기자>



북다클럽백목회, 혜정원 봉사활동

북다클럽백목회(회장 김봉신)는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11월 22일 혜정원 아가의 집(원장 고용성)을 방문, 생활인들을 위해 청소기를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행사

동제주복지관-국민은행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희경)은 KB국민은행 연북로지점(지점장 홍명석)의 후원을 받아 11월 15일 구좌읍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KB국민은행 연북로지점 자원봉사팀이 순수 김장김치 200포기를 정성스레 담가 구좌읍 관내 초등학교 교사가 추천한 요보호아동 가정 60세대에 전달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평소 KB국민은행 연북로지점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이 적은 구좌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구좌지역에 위치한 우리 복지관과 연계가 이뤄져 이번 행사가 성사됐다”고 밝혔다.

알림/마당

■ 중3 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철수)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특강과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중3 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리는 특강에서는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어기준 소장이 ‘클릭의 유혹에 빠진 우리들의 성’을 주제로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성문제가 대두되면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터넷 활용에 대해 강의한다.

체험프로그램은 ‘탐라순력도를 따라서’, ‘세계자연유산을 찾아서’, ‘제주의 길, 올레걷기체험’ 등 3개 프로그램이 총 5회 운영된다.

‘탐라순력도를 따라서’는 본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제주의 역사를 되새겨보기 위해 제주의 보물인 탐라순력도를 매개체로 하여 운영된다. 조선시대 이형상 목사가 순력하였던 지역 중 조천, 성읍지역을 돌아보며 옛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을 따라서’는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거문오름 일대를 탐사한다. ‘제주의 길, 올레 걷기체험’은 제주만의 독특한 길, 올레를 따라 걸으면서 올레의 의미를 알아보고 체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751-5041~2.

■ ‘족심’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족심’ 체험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인의 신청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은 복지관 체험교육실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 오후 2시~5시 등 3시간씩 2회에 걸쳐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

족심은 지압이나 안마 또는 활법, 경락, 스포츠마사지와 달리 발바닥을 이용해 몸의 균형을 찾아주며, 배우면 누구나 쉽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강요법이다.

문의=726-8388.

■ 된장 만들기 체험 자원봉사자 모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어울림터(원장 조인석)는 오는 8일부터 보름간 실시될 콩 삶기와 메주 만들기 등에 참여할 자원봉사자와 단체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어울림터는 영천토속된장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문의=732-0295.

“어르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서귀포일터나눔지활센터, 노인복지시설서 순회공연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관장 임철남)는 노인복지시설을 찾아가 ‘어르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순회공연을 갖고 있다.<사진>



11월 12일 위미에덴요양원을 시작으로 19일에는 성요셉요양원과 평안전문요양원에서 공연을 가져 풍물, 노래, 태극권, 댄스어어로빅 등 동아리에서 배운 기량을 어르신들에게 선보여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 달에는 동광효도마을과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에서 공연을 벌일 예정이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기계발과 문화생활육구 충격을 위해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동아리활동을 시작한 일터나눔자활센터는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새롭게 풍물, 노래, 태극권, 댄스어어로빅 등의 4개 동아리가 꾸려져 6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일터나눔자활센터는 10월 10일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에서 동아리발표회 ‘樂, 나를 즐겨라’를 개최한바 있다.

칼럼

슬픔에 잠긴 그대와 나에게



고 보 선
제주산업정보대학사회복지과 교수

불황(不況), 불경기(不景氣), 우울(憂鬱), 자살(自殺)이란 단어들 이 우리의 주위를 떠다니고 있다. 굳이 계속되는 유명 연예인들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아도,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를 어렵게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 곁에는 여러 이유 들로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이 많다.

주변 곳곳에 먹구름 가득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깊은 한숨소리는 '회색 바이러스' 가 되어 곳곳에 먹구름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한(恨)이 많은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서일까? 예로부터 우리는 한숨을 내쉬는 사람에게 '망이 꺼지겠다', '복이 달아난다', '오래

못 산다' 라고 하며 정말로 박복(薄福)하고 장수(長壽)하지 못할 까봐 서로를 염려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위험한 상황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폭력이 난무하는 환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통에 무감각하도록 만들었다.

다른 이의 아픔에 위로의 말을 건네며 함께 아파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 상황에 놓이지 않은 자신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는 세상이 아닌가. 자신이 외면한 그 고통이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말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혹은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기적인 소음들로 시끄러운 이 때, 우리는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 자신이 혹은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무기력하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인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자신의 잣대로 다른 이의 고통을 평가하지 말자. 고통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

라, 그 아픔이 그 사람의 전부를 차지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타인의 고통을 존중해 주자. 이것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 자세일 것이다.

진심어린 배려· 위안 필요

둘째, 가슴앓이하는 이에게 시간을 주자. 이는 외면하는 것과 다르다. 자신의 아픔을 확인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고통 속에 한 걸음 내딛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해결사가 아니라 지지자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숨 소리도 들어야 한다. 한숨은 자신이 보내는 내면의 신호 중 하나이므로 한숨 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긴 호흡이 필요한 이유는 스스로 알아내어 자신에게 위안과 힘을 주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귀 기울여보라! 당신 곁에서 가슴앓이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대와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진심에서 비롯된 배려와 위안은 먹구름으로 가득 찬 '회색 바이러스'를 밀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힘, '행복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시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초상권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왕세자탄강진하도십첩병(王世子誕降陳賀圖十疊屏)'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고종이 앉아야 할 자리에 고종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왕이 앉을 의자만이 그려져 있다. 1874년 왕세자가 태어난 것을 축하



고 현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자문위원

하기 위해 연회를 베푼 장면을 그린 것인데 이 연회의 주최자인 고종이 없다는 것은 의문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선 당연한 것이었다. 왕은 그릴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정조가 한양에서 화성으로 행차하는 모습을 그린 '화성행행만차도(正祖大王華城幸行班次圖)'에서도 정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왕이 타고 앉을 말과 햇볕을 가릴 일산만이 그려져 있을 뿐이다. 왕의 얼굴은 보여서는 안 되는 영역이었던 것이다. 단 필요에 따라 어명을 내려 어진을 그리게 하였는데 봉건 왕조시대의 초상권은 단 한사람 왕에게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사진촬영시 클라이언트 동의 필수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초상권은 계급특권이 아니라 시민 인권으로서 보편적 권리가 되었다. 초상권의 핵심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공공적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취약자에게 초상권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하겠다.

이전에는 신체란 개인에 국한된 개념이었다. 그렇기에 신체가 병들고, 신체의 일정 능력을 잃어버릴 경우 이는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본인 동의 없이 신체기능에 대한 보완과 수술 등 외과적 의료행위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초상권 역시 지켜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초상권이 존중되면서 자기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 또는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동의 없는 신체의 촬영과 그 촬영된 모습이 세상 밖으로 알려졌을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기 때문이다.

직업적 파파라치도 사실 범죄행위인 것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유력후보가 장애인생활시설을 방문하여 목욕봉사를 하는 와중에 생활인의 신체가 전면 노출되어 일부 신문에 실렸는데 장애인에게 발끈하여 사과를 요구했었던 일이 있다. 사진촬영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없었을 뿐 더러 시설 측에서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이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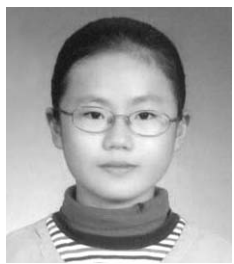
요즈음 신문지상에는 겨울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가정을 찾는 독지가들의 미담기사가 부쩍 늘고 있다. 기사사진을 보면 쌀과 라면 등 부식류 상자에 기증표시를 돋보이게 배치하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찍은 단체사진이 같이 실리는 경우가 많다. 겨울나기를 도와주는 이분들의 선행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물적인 봉사 못지않게 클라이언트의 초상권 보호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진촬영에 동의를 받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실제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에 동의여부를 클라이언트와 시설 측에 물어주기 바란다. 이렇듯 세세히 신경 쓰는 모습은 봉사활동을 넘어 인권영역을 넓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에 자원봉사자, 독지가, 이용자 모두 건강하기를 바란다.

기고

언니, 사랑해요!



김 푸 림
외도초등학교 5학년

영은(가명)이 언니를 만난 지 벌써 여섯 달이 지났다. 처음 얼마에서 주말마다 제주애덕의집에 가족봉사를 간다고 하시기에 어떤 봉사활동인지 궁금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했지만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잘하도록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노력도 안 해보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도 없으니까.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 가족이 맡은 역할은 목욕, 책 읽어주기, 산책 등이었다. '책 읽어주기'는 말하기 실력도 늘리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이었다. 자매결연도 맺어진다고 하는데 여자라고 하니 드디어 나에게도 '언니가 생

는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무척 들떠 있었다.

드디어 영은이 언니를 만났다. 말도 못하고 막내 동생 빛나와 정신연령도 비슷하지만 아주 명랑하고 잘 웃는 언니였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그동안 그려왔던 대로 실천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 언니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마음먹었는데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에 동화구연을 할 때는 목소리도 개미소리만큼 작았고 모든 일에 소심했다. 그러나 영은이 언니가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목욕을 할 때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씻겨 준다고 하니 부끄러워서 내 동생한테 떠넘기곤 했다. 내가 언니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대했다면 목욕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을 텐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몸도 직접 닦아주고, 발도 주무르며 "사랑합니다!"하고 외쳤다.

어느 날은 언니가 구부러진 허리를 세우고 똑바로 걸었다. '우리가 열심히 도와줘서 좀 더 나아진 것일까'하는 생각에 뿌듯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

시 하게 됐다.

이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다른 언니들과도 많이 친해졌다. 근데 여기서 언니들과 생활하니 언니보다 내가 더 달라졌다. 전에는 책으로나 학교에서 성장속도가 우리보다 조금 늦은 것뿐이었는데 영은이 언니와 지내다 보니 체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성경에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고 곤하며, 하느님께서는 그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신다'고 한 것처럼 언니를 통해서 나를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가 보다.

우리 반에도 언니와 비슷한 친구가 있어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며 피했는데, 지금은 내 도움이 필요한 조금 불편한 친구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 언니는 내 생각과 지식 등을 한 단계 높여준 고마운 은인이었다. 나도 언니처럼 동생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도와주는 언니가 되고,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제 언니가 되어준 영은 언니! 사랑해요!

■ 제주의 장수건강산업 연구 활성화 모색 세미나

“관광·휴양 등 장수브랜드 사업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화 사회에 제주 지역이 장수·건강의 섬 이미지를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브랜드화 시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11월 21일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4호관 세미나실에서 '제주의 장수건강산업 연구 활성화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지는 제주발전연구원 고승한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제주발전연구원 고승한 연구위원이 11월 21일 제주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열린 '제주의 장수건강산업 연구 활성화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청정자연환경 보존 필수...개발 부작용 최소화 은퇴 후 다양한 노동활동 참여기회 제공해야

제주발전연구원 고승한 연구위원은 '장수사회 구축을 위한 제주지역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가 초고령사회 혹은 장수사회에서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장수의 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청정자연환경의 보존

세계의 장수지역에는 주민들의 건강 유지에 필수요소인 깨끗한 공기와 물이 항상 있었다. 따라서 제주지역이 향후 장수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장수마을 혹은 장수지역에 대한 개발은 지속 가능한 유형으로 접근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보다 엄격한 환

경영 향평가를 적용해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장수마을 혹은 장수지역의 자연환경 보존과 관련해 건축, 경관, 고도제한, 도로포장, 자동차 이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행위를 할 때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제주의 생활문화 계승과 발전

장수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 식생활 습관을 가져 전통 음식을 즐겨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구화된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각종 야채류, 생선류, 육류 등을 이용해 요리한 음식을 즐겨 먹는 식생활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소박한 삶

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 문화의 창출 및 지원이 필요하며, 제주노인들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는' 강한 자립 및 독립심, 생활력과 노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가 및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요가와 공예, 음악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적 개선을 통해 노인복지수준을 한층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노인복지서비스가 맞춤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노인전문상담 인력을 육성하여 지역별로 '노인종합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인프라 구축

장수사회에서 노인들의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기존의 노인종합전문병원의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노화, 노인병, 노인식생활, 노인스포츠, 노인이자 및 문화, 노인복지, 장수·고령친화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고 동시에 연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장수사회 대비를 위한 중·장기 장수복지정책 기본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 종합화된 정책사업 및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

고 장수마을 혹은 장수지역에 대한 보존 및 개발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수 이미지 브랜드사업을 추진해 장수이미지의 관광자원화 사업, 장수식품의 개발사업, 고령친화산업 혹은 장수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할

또 동네, 이웃 및 지역사회 단위에서 '노인보호네트워크'가 결성되고 장수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세계장수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증진

세계장수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장수사회의 당면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아울러 장수문화의 공동 발전을 위

산·학·민·관 상호 협력으로 공동 대응 노인 특성맞는 서비스 상시제공 체제 갖춰야

필요성이 있다.

▲장수문화의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 확립

건강하고 활기찬 장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산·학·연·민·관이 상호 협력 체제를 가져 공동 대응하는 지원 네트워킹(Networking)을 해야 한다.

기업 및 산업체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학술 및 연구기관은 장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해 학제 간 연구에 힘쓰고, 행정기관은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복지기관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공에 노력하는 등 관련 주체들 간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

▲장수노인에 대한 인적관리시스템 구축

장수이미지를 지역브랜드화 하려면 지역의 장수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는 여건들이 잘 갖춰져야 하고 장수노인들의 보호를 위한 인적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 각종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한편 장수사회의 문화 보존과 계승에 공동 노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장수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관련 장수브랜드 사업의 활성화

장수이미지를 지역의 어메니티(Amenities) 자원으로 활용해 장수산업 혹은 고령친화산업을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 연구, 물적 기반, 기업유치, 상품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장수사회에서 타 지역시·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장수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는 지역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전략 품목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 관광, 식품, 한방 의료, 재활, 요양 및 휴양, 교육 등의 장수산업 분야가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주의 장수건강산업 연구 활성화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고승한 연구위원의 발표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Design is
another Salesman

디자인은

또 하나의 세일즈맨

좋은 디자인은 상품에
고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 회사이윤의
극대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디자인 열림은 창조적인 아이디어,
도전정신으로 뭉친
젊은 디자이너들로 조직화, 전문화된
능동적인 팀입니다.



대한민국지역홍보센터에서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트레킹 리플릿을
2008 우수홍보물에 선정하였다.

DESIGN YEOLLIM

디자인열림

팜플렛, 카다로그, 브로셔, 리플렛, 정기간행물, 패키지 제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 2730-4번지
tel. 82.64.746.0775 fax. 82.64.746.0774

